



# 기획력과 기술력으로 “한국 문화를 알려라”

디지털 콘텐츠대상은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등이 주관해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수출유망한 우수한 상품과 아이디어를 발굴, 육성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분기마다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multifineteck

멀티화인테크(대표 김재봉 www.mft.co.kr)의 제품인 ‘스즈끼가(家)의 한국어 대모험’이 지난 1분기 디지털콘텐츠대상 교육용 콘텐츠 부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스즈끼가의 한국어대모험은 CD-ROM, 워크북,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본인이나 재일동포에게 좀 더 쉽고 이해가 빠르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재봉 사장은 “워크북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한국어 학습 토탈 솔루션으로의 서비스는 1단계에 불과하다”면서, “2단계에서는 한국문화 포털 사이트로 이 제품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 제3단계는 내년부터 모바일 콘텐츠시장에 진출해 한국어 및 문화콘텐츠를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한국문화콘텐츠 B2C 커뮤니티 구축과 무선통신사업과의 B2B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있다”고 전한다.

스즈끼가의 한국어대모험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보통 책을 사보게 되는데 대부분 딱딱한 교과서적인 책들이 많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됐다. 기존의 교육 콘텐츠와 차별화해 교육을 엔터테인먼트화시켜 코미디 애니메이션을 통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상품을 아이템화시켜 한국문화를 알리며 교육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한 외화 수출도 기대되는 제품이다. 일본의 소프트웨어 유통사인 뉴미디어소프트판매와 컴퓨터웨이브, 인터넷 유통업체인 소프트뱅크커머스와 6월에 제휴를 맺고 일본 시장을 공략할 계획.

스즈끼가의 한국어대모험은 16세 이상의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총 볼륨 9까지 나올 예정인데 5월에 볼륨 2를 개발했으며, 6월에 볼륨 3 등 12월까지 9개의 볼륨이 완성될 예정이다.

김재봉 사장은 물리학 전공에 전기학을 전공했으나 다시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큐슈예술공과대학에서 다큐멘터리 영상학을 배우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현재 멀티화인테크를 경영하면서 동국대 영상제작과 교수로 겸임 중이다. 이대영/시사컴퓨터 기자(dylee@sisait.co.kr)



멀티화인테크의 개발팀